

FTA 20년...농식품 교역규모 3배 ↑

2004년 칠레 이후 59개국 21건 체결... 지난해 526억3400달러 교역 체결국 대상 농식품 수출 71억·수입 364억달러...전체 80·83% 차지

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20년 간 59개국(21건)과 FTA를 체결하면서 농식품 교역액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식품 교역액은 526억3400만달러였다.

이는 첫 FTA를 체결한 지난 2004년 174억 900만 달러 대비 202.3%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농식품 총 수출액은 89억 7000만 달러, 수입액은 436억2200만 달러로 지난 20년간 각각 연평균 6.2%,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현재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영연방, 중국 등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식품 교역액의

대부분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FTA는 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정국 간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교역에 있어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액은 71억3000만달러, 수입액은 363억8000만 달러로 각각 전체 농식품 수출입액의 79.4%와 83.3%를 차지했다.

실제 FTA 체결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시점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농업 부문 평균 시장개방률은 72.0%로, 미국이 97.9%로 FTA 대상 국가 중 시장개방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 유럽연합(96.3%), 호주(88.2%), 캐나다(85.2%), 뉴질랜드(85.3%), 칠레(71.2%), 아세안(67.4%), 중국(63.9%) 순이었다.

FTA 체결 국가 증가와 품목 확대 등으로 수출입 집중도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KREI 연구원이 FTA 체결에 따른 주요 농산물들의 수출입구조 파악을 위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통해 수출입집중도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는 0.46으로 지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다.

HHI는 시장의 집중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품목을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수출할수록 0에 가깝고 특정 국가나 품목에 집중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남경수 KREI 연구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촌의 안정적인 공급 및 경영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FTA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품목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기 기자 zj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우리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쌈'

상추·머위 등 다양... 날뛰는 채소값에 농가도 소비자도 난감

며칠 전 처가에 갔다가 쌈채소의 '신세계'를 경험했다. 처가를 오랜만에 찾은 터라 장모가 반가웠는지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다. 마침 머위잎이 쌈하기 좋다며 뒤 뜰에 있는 머위잎을 추천했다. 머위잎은 나물로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쌈으로는 처음이라 신기했다. 장모님은 자신도 남동생이 권해 먹었는데 씹살하지만 고소한 맛도 있고, 아무튼 몸에 좋을 것 같아 먹게 됐다고 말했다.

채소라면 가장 먼저 쌈을 떠올릴 정도로 우리 민족의 쌈채소 사랑은 유별나다. 외국에 나가 사는 한국인들은 빈 땅이 보이기만하면 가장 먼저 상추와 들깨를 심을 만큼 쌈거리는 우리 음식문화에 빼놓을 수 없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인의 장이 서양인보다 80cm가량 길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 장이 길어진 것은 오랜 세월 채소를 많이 해서라는데, 채소나 곡류에서 영양분을 다 흡수하려면 음식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보다 장이 길어진 이유다.

고기나 밥 등을 쌈으로 먹을 때 재료로 사용하는 쌈채소는 크게 잎채소류와 산채류로 나눌 수 있다. 쌈으로 먹는 잎채소로는 상추와 배추, 숙곳, 호박잎, 들깻잎 등이 있다. 또 봄에 취나물, 참나물 등 산채류 가운데 잎이 큰 것은 쌈재료 가 된다.

이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역시 이름 자체가 날로 먹는 채소인 상추일 것이다. 상추는 물론 쥐도 잘 자라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 쌈의 재료로 애용되고 있다. 천금을 주고 씨앗을 샀다는 '천금채'라는 옛 이름에 쌈채소의 일인자로서 상추의 명성이 담겨 있다. 여기 에다 어루나 육류의 독을 중화해준다는 들깻잎, 쓴맛에 향기가 진한 숙곳, 배춧속 정도가 날로 먹는 대표적인 쌈채소다.

이와 더불어 서양 채소류인 케일, 치커리, 양

배추, 엔다이브 등도 많이 재배되면서 쌈채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양에서 '채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십자화과 채소인 케일이 면역력 향상 등 몸에 이로워 쌈채소로 애용되고 있다. 쌈 싸들하니 입맛을 돋우고 식이섬유소도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인 치커리도 잘 알려진 쌈재료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엔다이브 역시 최근 인기를 끄는 서양식 쌈채소다. 꽃상추의 일종인 엔다이브는 벨기에의 대표적인 샐러드 채소로 형태는 배춧속처럼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순백색인데 쌈싸들한 맛이지만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 이어서 고급요리 등에 곁들여지는 품목이다.

하지만 쌈채소가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것인 만큼 가격 변동성이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쌈채소를 생산하는 농업인은 물론 이를 사 먹는 소비자들 모두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식당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채소인 상추마저 가격이 때때로 날뛰기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태풍이나 흉작으로 채소가 금값이 될 때면 상추 적게 준다고 삼겹살집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광경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는 것이 아니라 '금추'가 된 상추를 삼겹살에 싸 먹어야 할 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들리는 상황엔 가슴이 먹먹해진다.

최근 정부의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으로 금값이던 과일 가격이 안정세를 그리는 사이 채소값이 천정부지 오르면서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채소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밥상을 차리기 위한 서민들의 발걸음이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겠지만,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적절한 가격에 쌈재료를 구매해 고기와 함께 금직한 쌈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big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국민과 같이 행복농촌봉사단' 영농지원 발대식

대촌·평동 지역 일손돕기도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17일 대촌농협에서 법농협 광주본부 '국민과 같이 행복농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농협 영농지원 발대식 행사는 농촌 일손부족 현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전국적인 농촌일손돕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 개최됐다.

발대식에는 박내촌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황경아 남구의회의원,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 안민주 동신대 학생취업지원부처장과 법 농협 임직원, 동신대학교 학생봉사단,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봉사단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발대식 행사 후 봉사단은 대촌·평동 지역으로 나눠 고추대 뽑기, 옥수수 심기, 마늘·양파 밭 잡초 제거 등의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농협 광주본부와 동신대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농촌일손돕기



'국민과 같이 행복농촌봉사단' 발대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농촌재능기부 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해 농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호 본부장은 "4~6월까지 매주 1회 '국민과 같이 행복농촌봉사단'을 집중 운영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 희망이 있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농촌지역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영

농인력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본부는 올해 3만5000명의 농촌인력증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촌일자리 참여자 및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농협광주본부 또는 인력증개센터 운영 농협인 대촌농협, 동곡농협, 평동농협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갈치 한 마리 2만원...서해 수온 상승 '직격탄'

어획량 70% 급감

수온 상승으로 갈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갈치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국내 냉장 갈치 1마리(대)는 이날 평균 가격이 1만9352원으로 지난 1월(1만4306원)보다 5000원 넘게 올랐다.

전통시장 가격은 1만7800원이며 유통업체 가격은 2만1800원으로 2만원을 훌쩍 넘었다.

최근 냉장 갈치 가격이 급등한 것은 어획량이 전년보다 70% 넘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관측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갈치 생산량은 950t으로 작년 동기(3769t)보다 75% 감소했다. 보통 3월 갈치 생산량은 3000t을 웃돌지만, 올해 3월에는 1000t

을 밑돌았다. 월간 갈치 생산량이 1000t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19년 5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수협에 따르면 생산량 감소에 따라 지난달 냉장 갈치(선어) 위판량은 647t으로 작년 동기(2149t)보다 70% 줄었다. 지난달 평균 단가는 kg당 9297원으로 1년 전(6906원)보다 35% 상승했다.

서해 중남부 연근해 수온은 2월에는 평년(30년 평균)보다 2~2.5도 상승했으며 3월에도 평년 대비 2~3도 높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영·호남 남도문화포럼 개최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사단법인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회장 신금숙)와 지난 16일 완도군에서 '제17회 영·호남 여성지도자 남도문화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경남농협 임직원과 고향주부모임 전남·경남도지회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호남의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농촌사랑 실천을 위한 도농교류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금숙 회장은 "고향주부모임 회원 간의 결속과

회합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랑운동을 확산시켜겠다"고 말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위기에 빠진 농업·농촌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여성 지도자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여성지도자 남도문화포럼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전남·경남도지회 회원들이 문화교류와 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